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자”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수 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참 조 :

제 목 : 제20회 전국 고교생 논술 및 광주전남초중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 문화예술제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사업회에서 주최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제90주년 기념 제20회 전국 고교생 논술 및 광주·전남 초·중학생 글짓기공모대회 & 문화예술제를 붙임 같이 안내 하오니 각 급 학교 및 기관에서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 부분

- 1) 응모 기간 : 2019년 7월 8일(월) ~ 10월 7일(월)까지
- 2) 추천서 양식 :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고 7명 초과 시 복사 사용 가능하고
※ 학교공문 우편발송 시 추천서 생략
- 3) 홈페이지(<http://1929.or.kr>)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 및 대회 요강 안내

(붙임1) 제20회 전국고교생 논술 및 광주전남초중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 문화예술제 대회 요강
(붙임2) 학교장 추천서 1부. 끝.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수신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담당자 : 상임이사 김 환 호 (010-9091-3836)

협조자 :

시행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19-070801(2019.07.08) 접수

우 500-030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

/ <http://1929.or.kr>

전화 (062)514-1929

전송 (062)514-1930

E-mail/ mirkorea2000@naver.com / 공개

광주학생독립운동 제90주년 기념

제20회 전국 고교생 논술 및 광주·전남 초·중학생 글짓기 공모대회

1. 논술 및 글짓기 주제

[고등학교 논술]-전국

※ 다음 제시문은 최근 친일파 작곡자와 작사자가 만든 학교의 교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전주대학교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기자는 (가)와 (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놓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대처 방안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와 (나)의 의견 중에 어느 방향의 선택이 더 나은 것인지 개인의 소신을 말하고 여러분이 해당 학교의 담당자라면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서술하시오.

□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는 친일 잔재? 예술 작품? / 전주대학교신문 2019.03.20(수)

최근 ‘친일파 작사·작곡자 교가’문제가 대두되었다. YTN에 따르면 친일파로 분류되는 음악가들이 작곡한 노래를 교가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214개였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 113개교, 충북 19개교, 충남 20개교, 전북 25개교, 전남 18개교, 광주 17개교 등이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 친일파가 작사·작곡한 교가를 바꿔야 한다.

“그걸 왜 아직도 안 바꿨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걸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모 학생과 윤모 학생의 시선이다. 친일파가 작사·작곡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김 0 0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실제로 우리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붕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술적 판단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뛰어난 기량을 뽐냈다고 한들 친일 행위를 품긴 어렵다는 것이다. 중등음악교육연구회 사무국장은 “가사를 바꾸거나 교가를 교체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서도 교가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 작사·작곡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황당하다.

한 교장은 “노랫말에 친일적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단체가 친일파라 주장하는 음악가가 썼다는 이유로 교가를 바꾸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객관성을 의심했다. 해당 학교 교장은 “한 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 기록한 친일인명사전을 토대로 학교 교가를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식이면 이들이 작사·작곡한 동요나 가곡을 학생들이 부르지 못하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친일인명사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작품까지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고, 그런 논리면 어릴 때부터 들은 동요도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친일 논란 부분은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이 옳지만, 작품은 작품대로 인정해주는 게 옳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교가도 학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교가 교체는 이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친일 잔재인가, 한 예술가의 작품인가.

친일파 작사·작곡 교가는 친일 잔재인가, 한 예술가의 작품인가. 쉽게 규정할 수 없다.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 0 0 교수는 “친일파가 썼기에 고칠 필요성은 있지만, 주체적 행위는 학교의 부분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될 문제다”라며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강조했다.

[중학교 글짓기]-광주 및 전남

※ 다음 기사는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가 올해 초에 '호남의병 역사공원' 과 '독립의병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실린 신문 기사 내용을 읽고 전남의 어느 지역, 또는 광주시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시오.(한 곳을 지정하되 전남은 군 단위, 광주는 시,군,구 모두 관계없으며, 광주 재학 중학생이 전남의 어느 지역을 언급하거나 전남의 중학생이 광주의 특정한 곳을 언급해도 가능합니다)

□ 호남의병 역사공원 '뜨거운 감자' 우려 /전남매일신문 2019.03.25.(월)

전라남도가 추진중인 '호남의병 역사공원'을 따내기 위한 도내 지자체들의 경쟁에 일찌감치 불이 붙었다. 3월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호남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호남의병 역사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1억원을 들여 4월 중순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 연내 용역을 마무리 한 뒤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33만㎡(약 10만평) 부지에 건물 연면적 1만6,500㎡(5,000평) 내외로, 소요예산 13억원은 2020년 국고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념관·전시실·테마파크·상징조형물·학예실·교육관·놀이시설 등이 들어서며, 무겁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누구나 찾아와 체험하며 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역사적 상징성·접근성·부지 확보와 개발 용이성·주변 관광지와 연계성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용역으로 확정하고, 시군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남도의 방침과 달리 의병 역사공원을 유치하려는 도내 지자체들의 경쟁은 이미 뜨거워졌다. 함평·해남·영암·강진군 등이 대표적이다.

영암군은 김치홍·유시연·조치덕·정관오·양방매 등 정부로부터 독립유공 훈장을 추서받은 영암 출신 인사가 다수인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 전국 최대 규모의 농민독립항쟁 사건으로 알려진 '영보 형제봉 만세운동' 등 항일운동의 성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강진은 강진읍 남포마을의 '4·4 독립만세 운동' 등 일제강점기 전남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펼쳤던 지역임을 내세우고 있다. 항일 민족시인이었던 영랑 김윤식 선생의 생가가 있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김억추, 염결 장군 등을 비롯해 수많은 의병들이 봉기했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함평군은 독립운동가 일가 김철 선생, 의병장 정운길·정충량·이극성·김수연·심수택·박영근 등이 활약한 의향임을 내세우고 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철 선생의 신광면 생가터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재연한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 역사관'이 세워져 있다.

해남군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한 지강 양한묵 선생의 옥천면 생가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용역 이후 공모가 진행되면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유치를 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객관적 지표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겠지만, 참여 시군이 많을수록 탈락 지자체의 반발 가능성도 커 그만큼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과 별개로 광주시도 호남의병 기념사업을 추진해 기념 공간·자료 분산, 중복 투자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발주한 '호남의병 기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예정이며, 이용섭 시장이 최근 밝힌 '독립의병기념관' 건립 계획도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글짓기]-광주 및 전남

※ 다음 글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떤 학부모의 글입니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의견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저는 초등학교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반대합니다. 휴대폰의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만일의 일 어날 위험을 대비할 수 있으며 긴급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용도는 대부분은 문자와 게임입니다. 휴대하기 쉽다는 편리성을 오락에 초점을 두어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을 반대합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얻는 이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와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꺼두지 않아 갑자기 벨이 울려 수업의 진행에 방해가 주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또, 처음 휴대폰을 가지면 호기심에 자주 확인하게 되는데 자신의 공부에도 방해가 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전화도 찾아져 낭비를 하게 되며 자꾸 최신 폰을 보면 사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빈부의 차이를 느껴 위축되는 아이도 생겨날 것입니다.

셋째, 게임에 빠져 시력이 나빠지고 음악을 들으면 청력도 나빠집니다. 또, 길을 걸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건강 및 성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학생들보다 자신의 시간표와 준비물들을 잘 챙기지 못합니다. 휴대폰에 자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건강증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여섯째, 요즘 초등학교생의 비만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 놀지 않고 휴대폰으로 놀이를 즐긴다면 비만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어릴 때는 밖에서 뛰어 놀아야 심신이 건강하다는 인식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많은 단점들로 인해 초등학교생의 휴대폰 사용을 반대합니다.

[출처 : 카페 발도르프교육 /서주연님 글]

2. 세부지침

1. 응모내용

1) 논술 및 글짓기 부문

① 제시된 주제에 맞는 작품으로 응모

- 원고작성 : 초등학교 - 원고지 5매 내외(1,000자 정도), 또는 A4 1매(12포인트)
- 원고작성 : 중 학교 - 원고지 7~8매(1,500자 정도), 또는 A4 1매 내외(12포인트)

- 원고작성 : 고등학교 - 원고지 10매 내외(2,000자 정도), A4용지 2~3매(12포인트)

※ 매수에는 띄어쓰기를 포함합니다.

2) 문화예술 부문

①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알리고 선양하는 데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

종 목	참 가 부 문	작 품 규 격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 캐릭터, 엠블럼, BI, CI, 캘리그래피 등 산업디자인 ▶ 공예(종이/염색/금속/도자기/나무/섬유/클레이아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품작품 1점(500mm×700mm 사이즈의 펌 보드로 제작) ▶ 작품파일(JPG파일과 AI파일)이 담긴 CD 또는 USB ※ 우편접수 시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낼것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식과 장르의 UCC영상 - 동영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멘터리, 셀프 영상, 스마트폰 영상 등 - 애니메이션, 플래쉬몹 - 공연예술(울동,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80×720 픽셀이상 ▶ 3분 내외의 다양한 동영상 방식으로 제작 가능 ▶ mov, wmv, mp4 파일 형식/압축파일로 제출(300MB이하)

2. 작품제출 :

- 1) 논술 및 글짓기 부문 : 소속학교장 추천서 첨부 제출 - 우편발송 및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 2) 문 화 예 술 부문 : 소속학교장 추천서 첨부 제출 - 우편발송 및 인터넷(홈페이지) 접수

3. 유의사항 :

- ① 추천서(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 초·중·고등학생 응모자는 추천서 없으면 접수 무효
 - ② 원고작품 끝이나 출품작에 학교,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꼭 기재
 - ③ 수정하여 다시 접수할 때 삭제 후 접수바랍니다.
 - ④ 문화예술 부문 중 미디어 출품작은 동영상으로 제출 가능
- ※이중 접수 및 타 대회 참가 작품은 작품심사에서 제외하겠습니다.

4. 보 낼 곳 :

- 우편 :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 4층)
- 인터넷 접수 : <http://1929.or.kr> - 인터넷 접수 시 추천서는 팩스로 송부
- 문 의 전 화 : 062) 514-1929 ○ 팩스 : 062) 514-1930

5. 시상내용 :

시상구분	시도민 및 학생-전국	고등학생-전국	중학생-광주전남	초등학생-광주전남
대 상	2명(시장상-부상)	1명(교육감상-장학금)	.	.
금 상	2명(교육감상-부상)	3명(교육감상-장학금)	2명(교육감상-장학금)	2명(교육감상-장학금)
은 상	2명(교육감상-부상)	3명(교육감상-장학금)	2명(교육감상-장학금)	2명(교육감상-장학금)
동 상	5명(보훈청장상-부상)	5명(보훈청장상-부상)	5명(보훈청장상-부상)	5명(보훈청장상-부상)
장려상	5명(동지회장상-부상)	5명(동지회장상-부상)	5명(동지회장상-부상)	5명(동지회장상-부상)
장려상	5명(이사장상-부상)	5명(이사장상-부상)	5명(이사장상-부상)	5명(이사장상-부상)

※ 모든 수상자는 시상식 참석 必

6. 기간

- 1) 응모 기간 : 2019년 07월 08일부터 2019년 10월 07일까지
- 2) 입상자 발표 : 2019. 10. 17
- 3) 시상식 : 2019. 10. 27 오후 6시(장소는 추후 통보)
- 4) 안내 :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1929.or.kr>)-인터넷 접수처

7. 행정사항

- 가) 주최 :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후손회
- 나) 후원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지방보훈청 광주서중·일고총동창회

- 사단법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

